

교육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한 이론과 교육 대책

-통합이론과 교육론의 적용-

정 지 응*

- | | |
|----------------------------|--------------------|
| I. 서론 | III. 사회통합론의 교육적 함의 |
| II.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정치통합론의 적용 | IV. 문화통합론의 교육적 함의 |
| | V. 결론 |

Abstract

Theories and Educational Policies for the Educat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Integration

Education and political integration,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and cultural integration might influence each other and vice versa.

For the educational integration of Korean Peninsula, At this point of time, we should take consider the implication of Neo-functionalism and Pluralism theory rather than federalism.

Peoples need right information to cultivate social integration and ideal public awareness. After all, education would take charge of providing such information and promoting the attitude toward integra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ns to

be educated before unification to prepare for cultural conflicts rather than expectation of unification.

Furthermore, we put emphasis on strengthening cultural education for North Koreans. Namely, the driving of rapid awareness reformation could be performed only by education.

Education could make decisive turnaround or opportunity for the advance to national integration, which could return to the 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 the education for peace and the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

Key Words: educational policies, educational integration, national integration, integration theory, educational theory, political integration, cultural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I. 서 론

통합이란 “개별적 단위로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형성함”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의 통합이란 구성단위들이 서로 간에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개별 단위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체계 특성을 공통적으로 만들어 내는 체계 단위 간의 관계를 지칭한다. 통합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는 상이한 두 체계의 통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체계 간 통합의 문제보다는 체계 내 하위 체계들 간의 통합에 관심을 가질 때는 사회통합과 문화통합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통일 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의 시각 전환과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북한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독일통일의 후유증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서독 주민의 내적·의식적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통일 초기보다 통일 국민으로서의 연대감은 약화되었다. 통일 독일의 장래를 내다볼 때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어도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 의식의 통합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통합, 사회통합, 문화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은 남북한 주민의 의식의 통합에 있고, 의식의 통합을 위해서는 교육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경우 통일이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부적응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고, 그것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독일 통일에서 보여 지듯이, 정치적 극단주의와 폭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민족통합을 위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교육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오랜 기간 동안 극도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을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한 민족이라는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이질감은 서로간의 반목과 질시를 불러올 수 있고, 이

¹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136.

점은 실질적인 통합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교육적으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지역 주민이 통일 후 갖게 될 새로운 사회체제를 잘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상대 주민과 학생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고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통합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여러 부문 통합의 총합으로 보는 이론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경제통합이 잘 되어 경제가 발달하면 교육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교육을 통해 인재가 양성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교육이 경제통합 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치통합이론 중에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이론 속에는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다방면의 교류가 전제²되고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통합,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통합의 교육적 함의를 이론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논의에서 정치통합론이 교육통합에 주는 함의를 살피고, 사회통합과정과 문화통합과정에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론으로서 상호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³

II.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정치통합론⁴의 적용

교육부분의 통합은 정치적 통합의 양태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통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육통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치, 군사적 통합 혹은 교류, 협력의 수준을 교육통합이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군사적 통합의 수준에 따라서 교육통합 추진이 제약받기 때문

² 통합된 다양한 영역의 순서에 관한 문제로 파슨즈 학파는 군사적·경제적 통합으로 시작하고 정치적·동질적 통합이 후에 올 때 더욱 성공적이라고 주장한다. 공산주의하의 동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실패했고 1960년대의 경제통합이 정치통합보다 오히려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³ 본 연구가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의 혼란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대안을 제공하고,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교육통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늘 필자의 과문을 절감하고 있다.

⁴ 정지웅, 『통일과 국력』 (서울: 학문사, 2002), pp. 35-45 참조.

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 군사 통합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제한받지 않는 부문별 교류, 협력 및 통합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제도 통합의 한계는 통합되는 국가들의 사회와 교육 체제의 이질성으로부터의 한계이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벌어진 이질적 요소는 단기간에 통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교육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이론의 적용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교육 부문의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능주의⁵의 중요한 전제인 ‘비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에서 정치적인 분야의 통합’이라는 명제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부문에서 초·중등 교육보다 고등교육 차원에서 교류가 더 용이하고 또 비정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 교육 차원에서의 국제 협력이 반드시 비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고등교육은 국가 이익, 계급 및 사회 등의 쟁점들과 공공 정책과 관련되며, 어떤 지역에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어 고등 교육도 그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무조건 비정치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반대로 교육은 무조건 정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교육 활동은 정치적 요소와 비정치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고, 교육 내용은 고도로 정치적인 것과 극단적으로 비정치적인 것의 복합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분을 전제한다면 교육 부문의 남북한 관계도 ‘비정치적인 교육 분야가 ‘정치적인 교육 분야’에 앞서서 접촉,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가설이 정립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기능주의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즉, 남북한 교육 부문간에 체육, 과학, 기술, 학술과 같은 차원에서 기능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생기면 기능적 통합의 이익이 생겨날 것이고, 이 공동의 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

⁵ 기능주의 이론의 사고와 체계적인 연구의 기본적 틀을 제시한 학자는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 교수였다. 그는 모든 국가는 비논쟁적인 사회, 경제적 諸問題의 노력의 증대에 의해 상호의존의 복잡한 網狀구조 속에 통합되어, 거기서는 분쟁과 전쟁의 물질적·심리적 기반이 점차로 침식되어, 최종적으로 국경을 횡단하는 다수의 기능별 국제기구의 행정망이 확립되어 평화스러운 지역공동체가 창설된다고 보았다.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pp. 92-93. 기능주의자들의 전략은 정치문제 이전의 영역-즉 비정치적 영역-에서 협동과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반이 굳건히 구축되어 정치문제의 충격에 의해서도 기능으로 얽혀진 국가 간의 관계가 붕괴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비로소 정치적 영역의 통합 시발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로 만드는 것을 촉진시킬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후 지체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통합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보다 이상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 체계를 개혁해 가면서 북한의 전반적 교육 체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 평가하여 새로 마련된 기준에 맞도록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기능주의 접근 방식으로 남북한 교육 교류를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류의 단계로는 접촉, 친선, 공동 기구 설치, 물적 교류, 인적 교류, 고차적 협력 관계 형성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남북한 교육 관계 자료와 정보의 교환, 고등학술 연구사업 실시, 남북한 교육관계자 교류, 수학여행 및 고적 답사, 남북 학생 공동생활 경험의 유도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류, 협력 관계 위원회의 설치와 연구의 지원, 그리고 소요 기금을 마련해 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좀 더 통합이 진행되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 차원의 통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2. 교육통합을 위한 신기능주의의 적용

신기능주의자는 기능주의의 탈을 쓴 연방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들의 목표는 기능적 수단을 통해서 연방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관련성이 결여된 사소한 영역의 기술적 활동이나 협동에 의한 통합방식을 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정치성이 다분하고 또 정치적으로 중시되는 영역을 택하여 이것을 통합의 기술진이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다.⁶

한편 유럽의 통합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기술적 영역만의 협력으로는 정치통합은 물론 교육통합까지 심화시켜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실질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분단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⁷ 결국 이때는 신기능주의적 시각이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전략으로서 고려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⁸

⁶ Joseph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pp. 51-52.

⁷ 한만길 외,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 8.

⁸ 신기능주의와 기능주의의 차이점은 통합을 더욱 더 촉진시켜주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창출

한편 학술 교류를 비롯한 다방면의 접촉은 기능주의와 다원주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이 진행되어 교육 각 분야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게 될 상황이 되면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단순한 교류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통합기구를 설치할 경우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교육통합을 위한 연방주의의 적용

연방주의적 접근은 제도적 법률적 분석에 중점을 두어 현국가의 정치기구를 폐지하고 하나의 국제기구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법인 기구 또는 연방 제도를 구축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 지역의 통합은 급속도로 촉진되며 가맹국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충성심도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⁹

연방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교육통합적 함의를 보면 남과 북에 두 개의 교육 체제를 인정하고, 두 교육체제 사이에 가능한 교류의 체제를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연방주의적 교육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연방주의적 교육통합은 남북한 간의 교육 체제의 차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것의 다양성과 차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양체제간의 고유성을 최대한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방안은 남북한 통합의 실질적 효과와 의미를 반감시킨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즉, 어떤 실질적인 통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4. 교육통합을 위한 다원주의 이론의 적용

교육통합은 국가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풍토, 즉 배경 조건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통합의 배경조건이란 통합이 시작되기 위해 미리 조성되어 있

하는 계획에 있다. 본질적으로 신기능주의는 목표보다 과정에 관심을 두며 연방주의와 기능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기능주의는 정책 통합을 성취하고 나아가 중간 수준의 기구 통합을 이룩하면 그 결과로 더 높은 태도와 기구통합이 이루어져서 공동체 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⁹ 연방주의에 대해서는 Frank N. Trager, "Introduction: On Federalism," Thomas M. Franck, *Why Federations Fail: An Inquiry into the Requisites for Successful Federalism*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8); W.S. Livingston, *Federalism and Constitutional Change* (Oxford: Clarendon Press, 1956); J.A. Corry, "Constitutional Trends and Federalism," in *Evolving Canadian Federalism* ed. A.R.M. Lower and et. al. (Durham, N.C.: 1958); W.H. Riker, "Federalism," in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ed. F.I. Greenstein and N.W. Pollsby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1975) 등을 참조할 것.

어야 할 조건들을 말한다. 칼 도이치 등은 독일, 합스부르크 제국, 이태리,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안전공동체가 형성되는 배경조건을 제시했는데 다원적 안전 공동체형성¹⁰의 배경조건은 다원주의의 강화,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의식, 핵심 지역의 성장 등이다. 공동체의식 함양, 가치와 기대변화, 커뮤니케이션 등은 교육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즉 교육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은 통합에 참여하는 단위들의 능력과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원적인 교류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다원주의 이론에 의하면 국가는 인간의 거주 집단들을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연결시킬 때 탄생된다. 이를 국제관계에 그대로 확대 적용시켜 국가들도 자신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가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교류 증대를 통하여 안전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육교류를 포함한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증대가 필요하다. 거미망처럼 커뮤니케이션으로 얽혀졌을 때 두 집단간의 유대는 강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문의 접촉과 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역으로 교육을 통해 다원주의의 강화, 공동체 의식의 증대, 가치와 기대의 공유, 다양한 교류와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 교육통합을 위한 에치오니 이론의 적용

아미타이 에치오니는 4단계의 통일모형을 주장했는데 1) 통합이전의 상태, 2) 통합과정 A로 통합추진력(강제적 힘, 공리적 힘, 동질적 힘), 3) 통일과정 B로 통합영역, 도약과 통합영역의 확장, 4) 종료상태 등이 그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1단계인 통합이전의 상태로서 2단계의 통합추진력 중 공리적 힘과 동질적 힘을 확보하기 위해 남한은 북한과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핵문제와 국제정치적 문제로 갈 길이 멀다.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⁰ 다원주의 이론에 의하면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는 정체엘리트의 가치 양면성, 정치적 태도의 상호대응성과 예측가능성, 일반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국가간의 정치통합이 개별국가에서 정책 결정자의 인식과 행동에 의해 영향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정치엘리트와의 가치 공유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 즉 정치엘리트와 대중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의 변화가 정치통합의 주요 변수가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거래의 증대를 통하여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다.

1) 통합 이전의 상태

에치오니는 단위체의 특성 중 통합에 대한 호응과 저항을 다루면서 통합에 대한 시작과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단위결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발달된 나라보다도 발달이 되지 않은 나라들에서 통합을 이루기는 힘들다. 즉 단위결합의 결핍은 체계적 통합을 방해하는 것이다.¹¹ 에치오니의 분석을 남북한에 적용시켜 볼 때, 남북한은 단위결합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원주의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히려 체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도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주체사상으로 현재 통합이 잘 되어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제를 유지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정치교육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잘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치오니는 통합 이전의 체계는 많은 공통된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통합이 시작될 때 참여자들에게 공통되었던 문화적 영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에치오니는 “모든 배경적 특징이 통합에 대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어떤 것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이질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통합을 저해한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¹² 즉, 문화적 동질성은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통일에 있어서 전제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통합을 위해 한편으로는 노력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통합시 예상되는 문화적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개방적 다원주의 사고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것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반성하려는 자세, 다양한

¹¹ 마라야(Malaya)가 그 예로, 생태학적 단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종족그룹들 간의 긴장 때문에 단위정체성은 낮았다. 다른 가능성은 낮은 단위결합이 통합을 방해하는 경우로 1960년대의 콩고처럼, 떨어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와 거의 통합이 없었다는 것이고 1960년대 초반의 브라질처럼, 국내문제 때문에 지역통합에 신경을 못 쓴 나라도 있다.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 16-27.

¹² Amitai Etzioni, “A Paradigm for the Study of Political Unification,” *World Politics*, Vol. XV, No. 1 (1962), pp. 19-23.

의견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바로 이해교육의 관건이 된다.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어 더불어 살 때에도 이러한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문제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결국 민족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에 대한 문화교육을 강화시켜 신속한 의식개혁 추진이 필요한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2) 통합과정 A: 통일하는 힘

에치오니에 의하면 통합과 같은 사회·정치적 과정은 통합을 추진하는 엘리트들이 행사하고 결합시키는 힘의 종류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 그 힘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 힘--예: 군사적 힘, 파레토, 모스카 등의 이태리 학파가 관심이 많음. 앞으로 여기에서 강제는 폭력을 의미한다.

둘째, 실용적 힘--예: 경제적 분야, 맑시스트 학파가 이를 대변함. 국제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적 관계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셋째, 동질적 힘--예: 선전, 베버-뒤르켐 학파가 이것을 강조함. 교육, 종교 제도, 국가제전, 그 밖의 다른 기제에 의해 조성되는 가치와 상징이다

에치오니는 다른 종류의 힘이 함께 사용될 때 통합은 더욱 효과적이고 통합의 단계가 변해 감에 따라 통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힘의 종류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는 자산이 실제적인 힘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정보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통신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이 단계에서 주장하고 있다.¹³

그런데 교육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의 조성, 즉 배경 조건뿐만 아니라 통합이 일단 시작된 후에도 통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힘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단 통합이 시작되고 나면, 통합의 배경조건과는 성격이 다른 요인들이 통합의 과정을 이끌게 되며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의 과정조건이라 한다. 에치오니의 통합을 통제하는 힘도 일종의 과정조건이다. 그것은 다양한 엘리트들이 행사하는 통합추진력을 의미한다. 교육은 에치오니가 주장한 통합추진력(강제적 힘, 공리적 힘, 동질적 힘)중에서 동질적 힘과 관련된다. 동질적 힘은 교육, 종교

¹³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5), pp. 33-37.

제도, 국가제전, 그 밖의 다른 기제에 의해 조성되는 가치와 상징이다. 어떤 가치의 조작을 통해서 행사되는 힘은 현대와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강력한 통합 추진력이 될 수 있으며 교육은 여기에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세가지 추진력은 보완관계에 있다.

에치오니에 의하면 통합이 성공적이 되려면 이 세가지 힘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때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나 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통합의 형태가 무엇이나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령 어떤 나라가 통합을 통해서 군사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될 것이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질적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¹⁴ 한 반도의 경우에 이 세가지 힘들은 상황과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은 공리적 힘과 동질적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강제적 힘은 지양되어야 한다. 공리적 힘과 동질적 힘은 함께 동시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평화교육과 상호이해교육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만큼 교육의 과제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합과정 B: 통합영역

통합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통합의 수준은 확장되고 영역도 점차 커진다. 그 중 에치오니는 도약(take off)을 중요시하는데 도약은 비구성 단위의 도움 없이 그 자신의 힘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과정이 축적되었을 때 발생한다. 경제발달도 처음에는 발전된 나라들로부터의 도움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생산수단의 형성과 투자에 균형이 이뤄진 후에 비로소 도약이 이루어지듯이 통합도 처음에는 외부의 단위나 하부단위에 종종 의존하는데, 통합을 정지시키려는 힘에 스스로 대항할 수 있을 때 도약을 하는 것이다.¹⁵

통합의 도약점(take-off) 단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Deutsch는 공동체 의식을, Kissinger는 군사동맹을, Hass는 경제통합을 들고 있다. 군사동맹을 도약점으로 본다면 교육통합의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의식을 통합의 도약점으로 본다면 통합에 있어서 교육통합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된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¹⁴ 한만길 외,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연구 (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p. 20.

¹⁵ Amitai Etzioni, "A Paradigm for the study of Political Unification," pp. 51-55.

또한 한번 완성된 영역이 어떻게 안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높은 수준의 안정은 성숙된 정치공동체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영역의 결합이 높을 때 통합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종료상태

종료상태는 통합의 영역, 수준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는 상태이다. 이 상태는 통합의 분류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를 제공한다. 통합은 점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이 중단되면 통합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¹⁷ 남북한도 통일 상태에 들어가서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가야 한다. 당연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통합저항세력이 생겨서 통합은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통합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6·15 공동선언에서 약간의 수렴을 보이기는 하지만, 남한 정부는 점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을, 북한은 연방주의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위해 현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은,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보다는 점진적인 기능주의적 방식을 택하면서 신기능주의적 방식과 다원주의적 이론이 가지는 함의를 적절히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사회통합론의 교육적 함의

사회통합은 인간 상호간의 상호작용 증대를 통하여 이질화와 분리, 차별, 그리고 불평등이 소멸되는 과정으로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정체감과 귀속감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통합의 개념을 분열된 분단국가의 재통일과정에 적용시켜 보면 사회통합은 목표로서의 사회통합과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목표로서의 사회통합이란 분열되었던 분단국가의 양 주민들이 통일된 국가의 사회내에서 이질화, 분리,

¹⁶ *Ibid.*, pp. 56-60.

¹⁷ *Ibid.*, pp. 60-63.

차별, 불평등 요소를 실질적으로 제거시키거나 감소시켜 사회공동체 의식을 내면 화합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며,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이란 통일을 이루기 이전 과정으로서 분리된 집단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는 데 필요한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1. 뒤르껀 이론의 교육적 함의

뒤르껀은 분화도가 낮은 전통 사회는 ‘기계적 연대’에 의하여 유지되고, 분화도가 높은 산업화된 근대 사회는 ‘유기적 연대’에 의하여 유지된다고 하였다. 기계적 연대는 동질성에 기초한 연대로서 “동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통의 의식 상태를 견지하는” 상태이다.¹⁹ 집합의식은 모든 개성을 흡수하여 몰개성의 동질 사회를 만들고 동질성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금지된다. 집합의식을 해치는 행위는 범죄이며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기계적 연대의 사회는 집합의식과 개인 의식의 일치를 요구한다. 반면에 유기적 연대의 사회는 개별적이고 개성적이며 이질적이다. 그러나 사회 분화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집단간 및 개인간의 상호의존성은 높다. 그러면 유기적 연대의 사회에서 집합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도 집합의식은, 이 의식은 사회적 연대를 유지해 주는 바탕이 된다. 기계적 연대의 사회에서와 다른 점은 유기적 연대의 사회에서는 규범이 전문화된 집단에 따라 달라지면서도 모든 집단에 공통 요인은 한층 높은 수준으로 일반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전문 집단은 그 자체의 규범을 지니고, 높은 자율성을 견지하면서도 사회 전체는 그 나름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다.²⁰

이것은 바로 교육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문화된 집단에 따라 규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통해서 집단의식을 공유하게 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공공의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¹⁸ 박영희,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 10-14.

¹⁹ 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he Free Press, 1933), p. 109.

²⁰ 홍석영, “북한의 사회 통합과 주체의 교육학,”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p. 388.

2. 파슨즈 AGIL모형의 교육적 함의

뒤르켐의 고전 이론을 배경으로 기능주의적 체계 이론을 제창한 파슨즈(T. Parsons)는 체계의 기능적 통합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행위 체계는 생존을 위해 ①적응기능(A: adaptation), ②목표달성기능(G: goal attainment), ③통합기능(I: integration), ④잠재적 유형유지 기능(L: latent pattern maintenance)의 4가지 기능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보통 파슨즈의 AGIL 모형이라고 한다. 이때 각 부분의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정치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종교교육, 방송교육, 평생교육,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슨즈에 의하면 통합이란 지속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행위 체계에서 목표 달성 과정에 직접 협동하는 사람들 사이의 적절한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 체계의 통합문제는 목표 달성과 협동의 과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서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각 단위를 잘 조정하고 유대를 창출 유지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때 물론 조정의 역할이나 법적·제도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이러한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각 시민들에 대한 내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집단간의 기능 분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전체 사회구조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3. 하버마스 통합론의 교육적 함의

하버마스(Habermas)에 의하면 사회통합이란 발현하여 행동하는 주체들이 그 속에서 사회화 되고 있는 제도적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고, 이 경우에 사회체계는 상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생활세계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통합에 관련된 생활 세계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지평이고 배경이며, 생활세계의 구조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상호주관성의 형식을 확정하므로 이를 토대로 행위자는 객관적·사회적·주관적 세계를 지시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²¹

²¹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Beacon Press, 1984), pp. 150-151.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재사회화 역할이 없다면 사회체제는 동일한 상징적 구조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통합의 실패를 의미하며 그 체제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행위의 지향들을 조화시키는 상호이해의 메카니즘으로서 이는 사회과학적 분석을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내적관점과 결부시키는 것이며 탐구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이해와 참여자의 이해를 연관시키는 것이다.

4. 제이콥 통합론의 교육적 함의

제이콥은 10가지의 통합요인²²을 제시하였다. 이 제이콥의 10가지 가설 중에서

- 22 1. 지리적 인접성(Proximity):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살면 살수록 통합관계가 발전하기 쉬워진다. 그리고 사회공동체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할수록 그들 간의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2. 동질성(Homogeneity): 사회적 동질성은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에 큰 공헌을 한다. 복수의 사회간에 동질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들 사회간의 통합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기도는 성공하기 쉽다.
3. 상호작용(Transactions): 개인간 또는 집단간의 응집정도는 그들간의 상호관계 또는 거래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4. 상호간의 지식(Mutual Knowledge) : 개인간 및 집단간에 있어서 상호간의 지식 이해는 그들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사회를 이루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5. 기능적 이익(Functional Interest): 두 사회공동체 간에 일치하는 기능적 이익이 발견되면 그 이익을 느끼는 지배적 구성원은 각각의 정부에 영향을 주어 통합을 촉진시키게 된다.
6. 공동사회적 특성(Communal Character): 한 공동체사회가 경제적 활동에 강한 영향을 줄 집단적 동기패턴을 갖게 되면 그 결과는 그 집단 내의 응집력 또는 통합력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사회 내에는 부정부상태를 야기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호전적 태도를 갖게 되거나 한다.
7. 정치적 구조(Political Structure) :
 가설 7-1) 의사의 일치 또는 명시된 의사는 건전하고 통일된 정치적 사회공동체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주권적인 국민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하는 정치적 구조가 사회내의 단결에 기여하며, 전제적 구조는 반대의견을 자초하며, 나아가서는 강한 좌절감이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므로 공동체가 와해된다.
 가설 7-2) (전제주의적 주장)
 고도로 집중된 정치적 권위를 중심으로 하며, 일반의 참여 특히 반대의사 표명의 기회를 철저히 제한하는 정치구조는 외부의 위협과 사회적 변화의 조건하에서는 국가적 사회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전제주의적 정치구조가 통합 추진에는 유리하다.
 가설 7-3) (정치형태의 유사성과 통합)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치구조를 가진 공동체사회 간에는 서로의 통합을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여 주는 이념적 친근성을 갖게 된다.
8. 주권(Sovereignty): 한 국가가 주권을 뚜렷하게 보유할수록 다른 나라와의 협동을 덜하

동질성, 상호작용, 인식의 인접성, 기능적 이익, 사회적 특성 등은 사회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이콥이 제시한 동질성 증대이론은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남북한의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시사점을 주며, 동시에 교육 분야의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동질성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의 과제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통일 사회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 각 분야의 자발적 결사체와 민간 단체들이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조하면서 새로운 통일 교육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대중 매체, 학교 교육과도 긴밀하게 연계한 가운데 사회 교육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 통합의 세 가지 문제 영역인 하위 집단들의 포용, 하위 문화들의 상징적 일반화, 그리고 위계적 계층 집단들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분야에 걸쳐 적절하게 구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체계 통합의 수준과 삶의 세계에 대한 사회 통합 차원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실용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²³

5. 기타 이론들의 교육적 함의

사회통합을 커뮤니케이션 통합을 통해 구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워어스(Louis Wirth)와 실즈(Edward Shils)는 “대중매체를 통한 일체성으로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²⁴고 생각하고 대중매체를 중시하였다, 한편 도이취는 “국민들은 서로 의

려 하며, 또한 그 국가의 자주성을 침해할 정치적 움직임에는 더 강력하게 반대한다.

9.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al Effectiveness) : 정부기능의 능률성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충성심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충성심은 그 공동체의 내적 통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정부가 무능할 때는 외부와의 통합에 대한 압력이 생겨나게 된다. 시민들은 박을 내다보게 되며 그들의 충성심을 다른 더 큰 공동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에 대하여 쏟게 된다.
10. 통합의 경험(Integrative Experience): 두 나라가 과거에 통합을 했던 경험이 있으면 통합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진다.

Philip E. Jacob and Henry Teu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is of Political Community,”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and 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1964), pp. 16-44.

²³ 이온죽, “남북한 사회 통합의 이론적 탐색,” 『남북한 사회 통합론』 (서울: 삶과 꿈, 1997), p. 19.

²⁴ Robert Cooley Angell, “social Integration,” David L. Sh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p. 383; Louis Wirth, “Consensus and Mass Commun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3, p. 10.

존적이 되면서 통합되므로 정보를 받고 전하는 능력, 국경을 넘는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왕래의 증가, 교류를 사회적 통합”으로 보았다.²⁵ 그런데 그람시(Gramsci)에 의하면 지배 세력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는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존속된다고 말할 정도로 대중매체는 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언론매체가 바로 교육매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된다. 이처럼 교육은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넓은 뜻의 평생교육, 혹은 사회 교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다원적인 대중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가장 핵심이다. 이러한 매체가 실용화된다는 것은 통일 시대의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사회 통합의 하부 구조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이 교육이다. 통일 시대의 사회통합이 이상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려면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구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도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정보의 제공과 태도의 함양을 교육이 담당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행동을 분석한 호망스(George C. Hormans)는 두 사람간의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호간에 느끼는 공감의 정도도 커진다는 가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그룹내 개인 상호간의 접촉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상호간의 공감은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이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업무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상호작용을 중시하였다.²⁶ 이 이론과 관련하여 볼 때, 인간의 일생에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 교육이다. 어린이가 일찍부터 통일 사회의 이미지를 머리 속에 간직하면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 교육, 특히 어머니 교육이 시급하다. 어머니 교육도 학교, 대중매체, 시민 운동 주체들에 의한 사회 교육 등의 수단으로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영향을 받는 대중 매체의 사회교육 기능도 차체에 제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시대의 매체가 지니는 사회 교육적 기능과 영향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체 자체가 문화를 왜곡하고 저질화하는 데 급급한 현실을 돌이켜 반성하고 민족적 차원에서 새로운 각오로 쇄신하는 자세가 절실

²⁵ Richard Savage and Karl W. Deutsch, “A Statistical Model of The Gross Analysis of Transaction Flows,” *Econometrica*, Vol. 28, No. 3 (July, 1960), p. 55.

²⁶ George C. Hormans, *The Human Group*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0), p. 444.

하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중장기 사회통합과 관련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새터민²⁷의 남한사회 적응 교육은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새터민의 사회적응교육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²⁸

IV. 문화통합론의 교육적 함의

문화적 동질성은 공통된 가치관, 공통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분열된 사람들간의 ‘인적 교류’의 개념을 중시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둘 이상의 자율적인 문화체계들이 결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화변동”으로 정의되는 문화 변용은 상이한 문화간의 접촉 과정에서 한 문화 또는 두 문화 모두가 변화한다는 것과 문화를 ‘강한 문화’와 ‘약한 문화’로 구별하여 문화들간의 문화 변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교류는 남북한간 동질성 증대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북한 문화 체계가 상호 동질적인 전통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문화 교류를 통하여 사회·문화 체계의 동질성 증대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문화 체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화된 두 사회간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은 정치 통합과 같이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동질성 증대의 작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동론’의 교육적 함의

사회·문화구조의 변동방향 및 변화내용이 두 사회간의 동질성 증대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는 ‘기능주의적 통합론’과 ‘문화변동론’을 들 수 있다. ‘기능주의적 통합론’은 독립된 두 사회가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문화구조에 대한 과학, 기술, 사상적 우위를 확인하게 될 때 열등한 사회가 보

²⁷ 탈북자, 즉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공식적으로 변경하였음.

²⁸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238-240.

다 우월한 사회에 동질화된다고 본다. 이 이론은 과학 기술의 우위나 이상의 우월성 등이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과학 기술의 우위나 이상의 우월성 등이 교육을 통해 인식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문화변용론’은 상이한 문화간에 접촉과정이 일어난 경우, 그 중 한 문화 또는 양 문화 모두가 변화하며, 접촉이 빈번해질수록 사회·문화 체계의 유사상이 증대되고 통합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²⁹ 물론 그 매개는 서적이거나, 마스크, 사람을 통한 직간접의 교육에 의해 가능하다.

2. 함병춘 흡수통합모델의 교육적 함의

함병춘에 의하면 북한의 문화는 유물론적 사회주의 문화구조를 수용, 확립하였고, 남한의 경우는 강제적이기보다는 비교적 자연적인 발전과정에서의 변질을 가져왔다. 따라서 그는 남한 주도의 정치적 통합은 한국의 헌법적 지배를 북한으로 실질화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완전한 남북한의 통합은 문화적인 동일체적 의식을 공유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최소한 정치적 통일 직후에 문화적 통합이 뒤따르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문화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그런데 이 모델에 따르면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재사회화는 바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3. 장경모 수렴적 통합모델의 교육적 함의

장경모는 남북한의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의 주וג가치를 일치시키고, 동질성을 먼저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류의식을 회복하는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통일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어떤 전망으로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말하자면 북한주민을 통일의 주체로서

²⁹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2-3.

³⁰ 함병춘, “남북한 단일문화권 형성 발전에 관한 연구,” 『남북한 가치통합을 위한 서설』 (서울: 국토통일원, 1972), pp. 60-61.

³¹ 장경모, “탈냉전시대에 부응하는 남북한 통합방향 모색(2),” 『공안연구』 (서울: 공안연구소, 1993) 참조.

인정하는 ‘참여자 전망’에서 보느냐 아니면 북한주민을 통일의 객체로서 간주하는 ‘관찰자 전망’에서 보느냐에 따라 통일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 모두를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상호주체성’이 전제로 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자신만을 통일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상대방은 ‘객체’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통일의 주체는 남한이고 북한은 흡수의 대상으로 된다. 이 모델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주체로 인정하는 전자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모해야 하며 이것은 역시 교육의 몫이다.

4. 이용필 계기적 모델의 교육적 함의

그는 에치오니의 계기적 선택모델(a sequential-option)³²을 참조하여 남북한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의 구조적, 기능적 하위단위들의 계기적 통합과정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남북한간의 관계가 기능적 통합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경우, 에치오니의 모델은 제시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분화된 사회가 재통합되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³³ 이 모델은 남과 북이 단시일내에 전면적으로 통합을 서두르기보다는 호혜적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하위단위들간의 기능적 통합의 최적의 도약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³⁴ 이 때 교육은 상호 공통되는 문화에 대한 공지와 전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통일 후 문화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 단체 차원에서 남북한간 공동활동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남북한의 각종 학술단체, 종교단체, 학교, 연구기관, 체육단체, 예술단체 등의 단일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지역이 동질적인 시민사회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문화센터 설립,

³² 이 모델은 변화의 연구와 기능적 대안 및 구조적 분석을 결합시킨다. 초기의 거시적 선택들은 그 후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다음 단계에 대한 맥락이 설정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환점들이 존재한다고 가정되고 있다.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N.Y.: The Free Press, 1968), p. 572.

³³ 이용필, “기능통합의 이론적 기초: 접근법과 적실성,” 이용필 외, 『남북한 기능통합론』 (서울: 신유, 1995), pp. 34-38.

³⁴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 78.

종교단체 설립,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의 확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자발적인 사회·문화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북한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문화 전반에 대한 시정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내용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교육의 개혁을 유도함으로써 역사, 문화, 언어, 종교, 경제 행위, 사회규범, 생활습관 등에서 민족동질화를 고양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교육체제의 개편은 정치·사상 교육일색의 획일적인 사회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며, 일반주민의 교육기회를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사회교육의 성격과 내용은 교양 및 여가교육, 직업교육, 문화교육, 시민교육 등으로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간 상이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및 인식체계를 동등화시켜 양지역 주민들간 정신적·심리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정치통합, 사회통합, 문화통합이 가지는 교육통합과 교육적 함의를 볼 때, 교육은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 이전과 통일 후 민족통합을 위해 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지대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일이 될 때까지 바람직한 교육통합을 위해 무슨 교육을 실시하며 단계별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통일 이전의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론과 교육대책

통일 이전에는 남북한간의 상호이해교육이 가장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상호이해 교육이란 통일 후 이질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이해를 통하여 자기중심적 이해를 극복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이질문화와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상호 이해교육은 이질문화의 이해과정에서 자기문화, 자기사회, 나아가 자기 자신까지를 객관화시켜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고,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시켜, 통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살면서 상호교류와 협

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 가치관과 사고방법에서 이질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될 경우 심각한 문제점들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통일 후 맞게 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상실감과 가치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대응 방안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이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통일 후 북한의 역사와 체제 사회를 이해하는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은 통일 후 더불어 살아야 할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질화되어온 상대방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이해하려는 작업은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동시에 남한에서만이라도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 이전에 추진해야 할 교육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다.³⁵

첫째, 남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심화되어 온 상호 간의 차이와 갈등을 불식시키고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남북한은 분단 상황의 현실에서 상호간의 괴리감과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발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통일 이전의 상황에서 추진할 민족통합 교육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 사업이며, 남북한 상호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통일 이전 상황에서 추진해야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의 진정한 의미의 민족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여기에는 각종 교육 자료의 교환, 남북한 교육 관련 통계의 공개, 교과서 및 교재의 교환, 교육학 관련 학술회의 개최, 북한에 대한 종이 및 서적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또한 남한 학생의 북한 방문단 구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남북한 학생의 교환 방문, 지역답사, 학술여행, 수학여행 실시 등이 있다.

셋째, 남북한 간의 상호 객관적인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북한 교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선 교과서 시정 사업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학생들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공동생활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

³⁵ 한만길·김창환·정지웅,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pp. 252-253.

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교과서 내용에 대한 분석 검토, 교과서 개발 책임자와 집필자의 공동 협의, 비이데올로기 교과목의 교육내용 협의, 비이데올로기 교과목의 교육내용통합 개발 협의, 남북한 교과서 시정 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남북한 학생의 가치의식의 차이, 그리고 상호 간의 의식의 괴리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해와 화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학생들의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의식과 정서상에 나타나는 부적응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공통적인 가치의 발굴, 남북한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남북한 교육의 보편적 가치 확인, 남북한 학생의 상호 이해 프로그램 개발 실천, 남북한 학생의 상호 교류 실천, 남북한 학생의 공동 활동 기회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민족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대책으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지향적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 주는 것이다. 즉 남북한의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통일 이후의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론과 교육대책

이 때에는 남북한 모두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관한 교육’이요, ‘평화를 위한 교육’이요, ‘평화에서의 교육’을 말한다. 평화교육이란 첫째, 평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둘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신념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셋째, 실제로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 등의 3중적 속성을 갖는다.³⁶

평화교육은 평화연구나 평화정책, 평화봉사 등과 함께 평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방법이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에서는 항상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평화를 깨뜨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³⁶ 오인택, “평화교육 이념과 내용,” 『기독교 사상』 (1988), p. 10.

그 외 이삼열,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햇빛 출판사, 1991), p. 82;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제 29권 통권 190호 (1993), pp. 175-177; 조영식, “평화의 개선보다 귀하다,” 국제평화교육연구소 편, 『평화의 연구』 (서울: 법문사, 1983), p. 15; Herbert Read, 안동민 역, 『평화를 위한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56), p. 30 등에 평화교육에 대한 정의가 있다.

평화를 유지하거나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교육되지 않으면 안 되며, 평화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모든 전쟁과 갈등 행위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교육을 통하여 평화애호심을 널리 부각시키는 것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그리고 통일 이후의 민족통합과 갈등해소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통일 후에는 수많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문제를 타협과 양보, 화해와 협력, 상호이해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평화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한편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전반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반면,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구체적인 교육 목표로 삼는 교육이라 볼 수 있다.³⁷ 민주시민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정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 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반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남북한 체제의 잘못된 유산을 극복하고 개방 사회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주성, 그리고 그들의 협동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장차 그가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남한도 지난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에서 이제 보다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이행하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유산을 청산하는 데 더 실천적

³⁷ 버츠는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실, 애국심, 자유, 다양성, 사생활 존중, 절차 이행, 재산, 인권의 12개 항목으로 열거했으며, 로크우드와 헤리스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로 권위, 평등, 자유, 생명, 충성, 약속이행, 재산, 진실 등의 8개 항목을 제시했다. 미국시민교육센터는 시민의 자질로 시민성, 개인의 책임, 자율, 시민다운 마음, 개방적 마음, 타협, 다양성에 대한 관용, 인내와 지구력, 정열, 관대함, 국가와 그 원칙에 대한 충성의 11개 기본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광병선 외, 『민주시민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pp. 36-38.

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나 통일 후 민주시민 교육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생활 실천적인 정향에서 출발해야 하고 설득력이 있는 참여적 학습 형태들을 응용해야 한다. 또한 이에 입각하여 개인적인 정향 또는 욕구를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요구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과 정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성숙된 민주시민들을 양성해야 하고 북한 주민과 학생들에게 보다 강도 높은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생활양식을 특징지우고 있는 요소들은 현재나 통일 후 갈등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기본소양이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나 통일 후의 진정한 통합과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이후의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이후에는 교육체제의 통합으로서 제도와 형식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각기 특징적인 학제를 통합하는 작업은 남북한 교육의 상호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에는 남북한 표준적인 학제의 설정, 남북한의 상호 상이한 학제의 연계 방안 결정, 남북한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 결정, 남북한 지역 교육의 특수성 구현 방안, 북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실시, 북한 학생의 대학 진학 자격 인정 방안 결정, 북한 학생과 주민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의 실시, 북한 지역 교사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제도 통일에는 앞에서 다룬 정치통합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통일 이후는 에치오니의 4단계 통일모델 중 마지막 종료상태에 해당한다. 이때는 그동안 다양한 정치통합론의 적용을 해온 것 중에서 신기능주의적, 다원주의적 방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도적인 단일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교육내용과 과정의 통합으로서 내면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통일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한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높은 결속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남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의 뿌리가 같고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바탕이 동일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이질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는데 남북한은 삶의 양식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통일이 진척됨에 따라 문화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때 교육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 기초과학, 순수 학문 관련자료, 전통, 민속 예술자료, 기록영화의 교환
 - 남북 도서관 장서목록 교환
 - 기초과학 및 순수학문에서의 공동조사, 연구 및 협력사업 실시
 - 학생예술행사, 민속행사, 교육세미나, 학술회의 등의 공동개최
 - 판문점내 남북학술회의장 설치
 - 국제과학, 기술대회, 국제체육경기대회에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 참가
 - 탈이념적인 전문서적과 순수문학서적 등의 전시회 상호 개최, 공동제작 출판
 - 제 3국 또는 남북한 개최 학술·문화행사를 통한 상호 접촉 왕래 활성화
 - 남북 학생 또는 청소년 공동생활센터 개설·운영
 - 남북 합동 수학여행단 구성, 학생 또는 교원 합동수련회 개최
 - 유학생, 교환교수, 특파원의 상대지역 주민 가정 기거 추진
 - 활자 통일 및 국어사전, 역사도서, 성서 및 교리 공동편찬
 - 정부 차원에서 재사회화를 위한 기관 설립 및 전문가 양성
 - 학술단체, 종교사회단체 등이 간행물, 학술회의 및 연수주선을 통한 정치교육 수행
 - 방송전파매체를 통한 정치교육 방송 실시
 - 북한의 문화, 예술인, 교사·교수의 재교육 추진
 - 북한 문화 전반에 대한 시정프로그램 마련
 - 민간주도의 다양한 사회교육기관 설립
 - * 교양 및 여가교육: 외국어 교육, 예절 일반상식, 취미 등 실생활교육
 - * 직업교육: 컴퓨터 학원
 - * 문화교육: 전통문화 및 서구문화 교육
 - * 시민교육: 인권, 시민권, 민주주의 등에 관한 교육
 - 시장경제체제 및 사회보장제도 관련 교육 홍보실시
 - 북한 노동자 전업훈련 및 재교육 실시
 - 남북 교원 단체 총연합회 구성, 운영
- 셋째, 통일 이후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무교육의 실천은 중요한 의

³⁸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방안』, pp. 22-27.

미를 갖게 될 것이다. 교육체제의 개편에서 교육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통하여 구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하도록 할 뿐 아니라 무상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 학생들에게 통일사회의 이념과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로써 통일 이후에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교과서의 개발 보급, 그리고 남북교원에 대한 재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낙후된 교육시설을 복구하고 북한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는 남한 지역 교육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개편과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통합은 양측의 정치권력이 ‘공동의 양식’을 만들기 위해 변화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의 실효성과 지속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통합은 국가 통합의 진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 혹은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교육의 통합적 역할은 사회화의 문제와 관련된다. 교육은 사회화의 역할을 통해 민족적 일체감의 형성이나 정치질서의 정통성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학교교육을 통해 일정한 문화양태나 정치이념 등이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될 경우 그 교육은 국가사회의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교육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형태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며 그 결과 사회의 결속력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교육은 상호이해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